



남성빈

서중원

캐머런 스미스 '제150회 디오픈' 역전 우승의 힘

5홀 연속 버디쇼...역시 '퍼팅왕'

4R 8언더 몰아치고 역전...생애 첫 메이저 챔프
올드코스 사상 첫 20언더파 우승...우즈 넘어서
호주 선수론 노면 이후 29년 만에 '클라레 저그'
상금 33억1000만원...“내 골프인생 하이라이트”
“LIV 골프로 이적설? 잘 모르겠다” 여지 남겨

THE
OPEN
150th ST ANDREWS

‘퍼팅 왕’ 캐머런 스미스(29·호주)
가 ‘골프 발상지’로 불리는 세인트앤
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생애 첫 메이
저 챔프의 영광을 안았다.

스미스는 18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
주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에서 끝난 ‘제
150회 디오픈’(총상금 1400만 달러·185억5000만 원)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아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하며
캐머런 영(영국·19언더파)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50만 달러(33억1000만 원)와 함께 챔피언 트로
피 ‘클라레 저그’를 품에 안았다.

20언더파 268타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디오픈 역대 최다 언더파 신기록. 2000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한
이후 22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디오픈 전체로 보면
20언더파 우승은 2016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이후
스미스가 두 번째다. 당시 스텐손은 파71 코스에서
20언더파를 쳐 타수로는 264타를 기록해 이 대회 최저

제150회 디오픈 최종 순위 (파72)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캐머런 스미스(호주)	20언더파 268타	67-64-73-64
2위	캐머런 영(미국)	19언더파 269타	64-69-71-65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18언더파 270타	66-68-66-70
공동4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14언더파 274타	72-69-66-67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68-66-66-74

※ 김시우 10언더파 공동 15위, 김우형 5언더파 공동 47위, 임성재 4오버파 공동 81위

타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스미스는 올해 3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 이후 4개월 만에 승수를 보이며 미국프
로골프(PGA) 투어 2021~2022시즌 3승 및 통산 6승
을 달성했다. 이전까지 메이저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
적은 2020년 마스터스의 공동 2위였다. 호주 선수가
디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1993년 그렉 노먼 이후 29년
만이고, 호주 선수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디오픈을 제패한 것은 1960년 켈 네이글 이후
62년 만이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와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상 16언더파)에 4타 뒤
진 공동 3위였던 스미스의 역전 우승 원동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퍼팅 능력이었다. 지난해 월드
골프챔피언십(WGC) 세인트주드 인비테이셔널 2라운
드에서 18개의 퍼팅으로 라운드를 마쳐 PGA 투어 한
라운드 최소 퍼트수 타이 기록을 세운 ‘퍼팅 왕’다웠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내가 디오픈 챔피언이다.’ 캐머런 스미스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제150회 디오픈에서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
하며 정상에 오른 뒤 은으로 제작된 주전자 모양의 ‘클라레 저그’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세인트앤드루스(스코틀랜드 파이프주) | AP뉴시스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로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
고 있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발매 첫 주 100만장...에스파, 글로벌 강자로 우뚝

음반 ‘걸스’ 빌보드 앨범차트 3위 진입
블랙핑크 이어 K팝 걸그룹 2번째 순위

케이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4세대 대표 주자’
에스파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8일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Girls)를 한국과 미국 동시에 발매하
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이들 미국 빌
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3위를 차지하며 첫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 ‘케이팝 4세대 걸그룹’ 가운데 최고 순위

미국 빌보드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온라인 차트 예고 기
사를 통해 “한국의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첫 ‘톱10’에 진입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미니앨범 ‘새비지’로
‘빌보드200’에서 기록한 20위보다 17계단이나 상승했다.

특히 이 기록은 2020년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으
로 2위, 이듬해 트와이스가 정규 3집으로 8위를 차지하는
등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두 번째 높은 순위다.

‘빌보드200’은 실물 음반(CD) 판매량에 디지털음원 다운
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를 더한다. 에스
파는 5만6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첫 주 앨범 판매량의 98%는 실물 CD였고,
나머지 2%가 디지털 앨범이었다”고 설명했다.

‘걸스’는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첫 영어곡 ‘라이프스 투 쇼트’(Life’s Too Shor

t)와 한국어 버전, ‘도깨비불’, ‘링고’(Lingo), ‘ICU’ 등
총 9곡이 담겼다.

● 케이팝 걸그룹 최초 ‘초동 밀리언셀러’

앞서 이번 앨범은 발매 7일째 한터차트 기준 100만 장
이상 팔려나가며 케이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썼다. 걸그룹
음반의 발매 첫 주 판매량(초동)이 100만 장을 넘긴 것은
한터차트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에스파가 처음이다.

또 다른 앨범 집계차트인 씨클차트(옛 가온차트)에서
도 첫 주에 판매량 142만6487장을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에 등극했다.

미국 음악지 롤링스톤도 최근 “에스파는 가상세계, 악
당, 아바타 멤버가 등장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데뷔 이후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근본은 음악”이라며 “이제는 광야
로 향하는 소녀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호
평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